

물류개념의 인식 제고와 물류근대화 추진

물류관리사 양성, 국제교류, 컨설팅 활동

기업 이윤의 제 3의 원천, 물류 21세기를 바라보는 요즘 우리나라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내적으로는 노사협조 체제의 정착과 기업의 생산성제고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가 하면 외적으로는 수출부진과 시장개방압력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경영을 전체적으로 검토, 비합리적이고 전근대적인 요소를 찾아내어 해결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물류분야가 기업 이윤의 제3의 원천'으로 중요시되고 그 연구가 부쩍 활기를 띠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 생산, 유통의 다품종 소량화, 서비스 수준의 고도화, 물류 코스트의 증대 등 지속적인 물류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하에서 미시, 거시 양면으로부터 물류 제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족된 것이 물류관리협의회이다.

물류관리협의회는 1984년 9월 국내의 물류 발전과 물류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위하여 산업계, 연구계, 학계의 물류 전문가들이 모여 임의단체

(당시 한국물류관리연구실)로 출발, 1990년 2월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사단법인 한국물류관리협의회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종로구 구기동 요진쉐레이 빌딩 508호에 자리잡고 있는 협의회 사무실에서 안태호 회장을 만났다.

“물류관리협의회는 물류 근대화를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유일한 단체로 산, 학, 관의 물류전문가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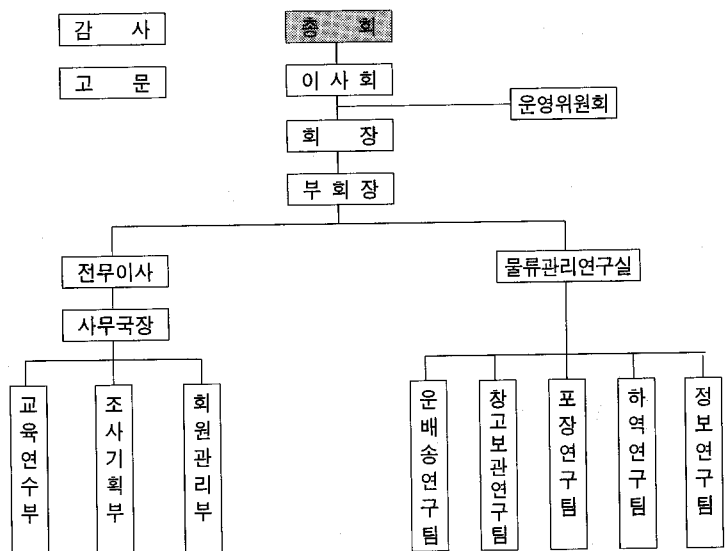
우리나라 물류근대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기업 물류의 생



▲ TV강연중인 물류관리협의회 안태호 회장

산성을 제고, 물류활동을 통해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본 협의회 취지이지요.”

(표 1) (사)한국물류관리협의회 조직표



물류관리사 교육과정 운영

물류관리협회의 활동은 크게 교육·연수, 정보제공, 조사·연구, 국제 교류, 컨설팅 및 기타 기획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육·연수 활동에서는 물류관리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물류관리사 과정이란 물류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하여 실시되는 장기 연수교육으로, 물류 전영역에 걸쳐 각 기업 및 학계 등 최고의 강사진으로 진행되는 현장 대응형 전문 물류관리사 자격인정 과정이다.

1990년에 제1기 과정을 시작으로 현재 제8기 과정(10월 4일~12월 10일)이 진행중이다.

총 31일간 40강좌에 걸쳐 1백39시간 동안 진행되는 물류관리사 과정은 포장, 운송, 하역, 보관, 정보의 각 부문 전문가들이 강의하는 국내 유일의 물류교육체계라고. 주요 강의 내용과 강사는 [표2]와 같다.

또한 연 8 회 업종별 기능 특성에 따른 물류기능사 단기과정(2일 단위, 4과목)도 진행하고 있다. 그외에도 정기적인 물류세미나 개최, 물류관련 산업시찰 등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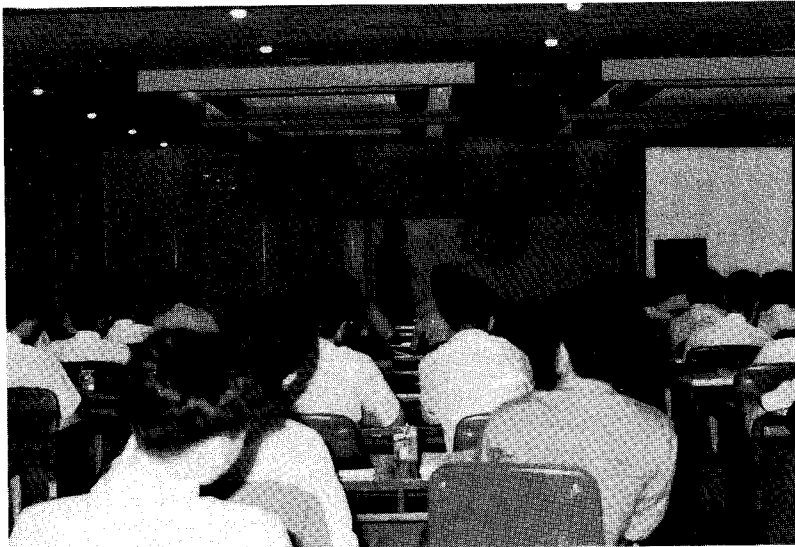
정보제공 활동으로는 물류정보지 '로지스틱스'를 분기별로 발행, 기업의 물류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물류관련 단행본이나 교육용 VIDEO도 제작 보급한다고.

물류 시스템에 관한 조사연구는 ▲물류에 관한 정부기관 및 관계기관 등의 수탁조사 ▲교통부 물류표준위와의 물류조사 협력 ▲물류 시스템 기기생산 출하통계 조사로 나뉜다.

“교통부의 ‘화물유통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에 관한 연구’ 용역을 맡아 지난 10월 5일 상공회의소에서

[표 2] 물류관리사 교과 과정

분 야	주 제	강 사
물류관리 입문/개론, 행정	물류관리 총론 MARKETING과 유통관리 물류관련법규, 제도, 규칙 물류행정의 동향(Ⅰ) 물류행정의 동향(Ⅱ) 경영관리기법/IE, VA, QC, OR 기업물류의 합리화 과제 물류시스템설계와 SIMULATION연습	안태호 박사 조관수 박사 이용상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원 이중교 경제기획원 사무관 김선태 교통부 사무관 박진우 박사 오세영 박사 송성원 박사
포장	포장의 이론과 실제 포장설계와 기법 포장작업의 기계화/SYSTEM화	이대성 개발원 본부장 남병화 개발원 수석연구원 김영호 포장기술연구소 소장
운송	운, 배송 관리의 이론과 실제 운송의 형태와 활용방법/트럭, 철도 운송의 형태와 활용방법/해운 물류와 화물보험 및 운송계약과 운임 운송의 형태와 활용방법/항공 소형화물의 운송과 배차관리기법 —주기 시스템 복합일관운송과 UNIT LOAD SYSTEM	박호균 부원장 박기환 대한통운 직업훈련원 원장 진형인 해운산업연구원 박사 조규팔 감사 김영결 대한항공 부장 전중신 동원산업 이사 윤문규 박사
하역/보관	운반 하역의 이론과 실제 하역설비 및 기기의 효율적 선정과 이용 보관(창고)의 이론과 입지 및 형태 보관의 실제와 사례 물류센터설계와 시스템 운영기법(유통업) 물류센터설계와 시스템 운영기법(제조업)	김정환 상무이사 서병륜 한국팔레트폴 사장 김정환 상무이사 배효점 삼성항공 소장 강석득 신세계 백화점 이사 이용우 삼성전자물류담당 영업소장
정보	시스템설계와 ORDER ENTRY/ 창고, 운·배송 물류에 있어서 정보처리 방법POS/VAN 물류정보 SYSTEM의 실제(제조업) 물류정보 SYSTEM의 실제(유통업) 물류정보 SYSTEM의 실제(운송업)	이문재 한국물류컨설팅 대표 이부영 한국 IBM부장 허진구 한국 IBM유통영업 부장 이부영 한국 IBM부장 최규용 한진물류연구소 차장
종합관리	재고관리의 실제(Ⅰ) 물류의 효율성분석과 진단기법 물류변화의 전망과 물류의 급후 재고관리 이론과 실제(Ⅱ) 물류혁신사례(물류업) 물류의 예산관리 물류의 원가관리 CASE STUDY(발표, 토론, 평가)	배정태 럭키 팀장 윤문규 박사 안태호 박사 윤덕균 박사 김인호 용마유통 이사 전만술 박사 전만술 박사 서병륜 한국팔레트폴 사장
현장교육	물류선진기업 견학 GROUP별 토의 발표, 토론, 평가	연수위원
시험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연수위원



▲ 물류관리협의회에서 주최한 물류혁신 사례 발표회

최근 생산 유통의
다품종 소량화, 서비스
수준의 고도화,
물류코스트의 증대 등으로
인해 기업경영에서
물류혁신이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때 미시·거시 양면으로부터
물류 제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족된
것이 물류관리협의회이다.

공청회도 무사히 끝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까지 기업의 물류용역을 수주한 것이 20여건에 이르고 있지요.”

안태호 회장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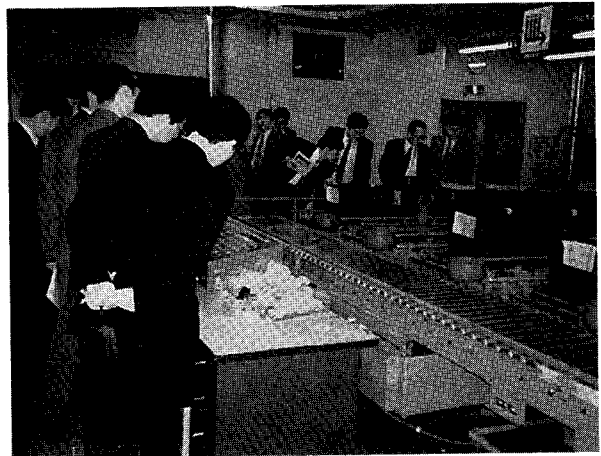
또한 기업의 물류혁신을 위한 물류진단 등을 위하여 부설 물류관리연구원을 설립, 전문적인 물류 이론과 기법을 바탕으로 물류코스트 절감과 서비스 수준의 향상, 기업 이익의 극대화 등에 대한 컨설팅 업무도 수행한다.

아시아태평양 물류조직연맹 회장이기도 한 안태호 박사는 특히 국제 교류 부분의 활동을 강조하였다.

“물류관리협의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외국의 인정을 받은 단체입니다.

지난 85년부터 매해 일본에 물류시찰단을 파견하고 있으며 90년부터는 한일물류전국대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일본뿐 아니라 유럽, 미국 등에도 연수시찰단을 보내 물류혁신에 일조를 담당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 물류관리협의회에서는 85년부터 매해 일본에 물류시찰단을 파견하고 있다.



현재 협의회에서 교류를 갖고 있는 외국 단체는 아래와 같다.

〈미국〉

● National Council of Logistics Management

● The Material Handling Institute

〈영국〉

● National Material Handling Center

〈일본〉

● 일본로지스틱시스템협회

● 하역연구소

● 일본총합연구소

● 유통시스템개발센터

● JAPANESE PALLET RENTAL

● 사단법인名古屋운반기계화협회

‘포장표준화는 물류합리화의 출발점’

물류가 기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고, 물류혁신을 위한 노력과 연구가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안태호 회장은 아직도 안타까운 점이 많다.

“물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물류혁신을 위한 지속적 노력,

물류 조직의 체계화가 이뤄져야 물류 근대화를 이룰 수 있는데 투자가 이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투자를 하고 물류합리화를 이뤄 차차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데 투자는 하지 않고 비용절감만 바란다는 건 지나친 욕심이겠지요.

투자가 비용절감을 바라는 경영자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할겁니다.”

물류합리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포

장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포장합리화 없이 물류합리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포장은 물류 활동의 중요한 요소니까요.

포장의 표준화, 저장화, 공정의 자동화, 개발의 계획화가 물류합리화를 위한 선결요건이 될 것입니다.

포장표준화는 물류합리화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물류관리협회의 왕성한 활동에

비해 다소 비좁아 보이는 사무실을 나오면서 안태호 회장의 겸연쩍어 하는 말 한마디가 생각났다.

“사무실이 너무 좁지요, 회장 자리도 초라하고.”

그러나 이 좁다란 사무실에서 우리나라 물류근대화를 위해 제 땀을 흘릴 때 사람들은 더 큰 박수를 보낼 것이다.

윤희진 기자

인재육성, OJT가 첫손 꼽혀 업무 노하우와 기업문화 전승수단

기업내 교육의 주축을 이루는 직장외 연수(OFF-JT), 직장내 직무훈련(OJT), 자기계발(SD) 가운데 OJT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업마다 이의 전사적 정착과 활성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경영문화연구소가 국내 60개 중견업체 인사교육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재육성 체계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OJT가 41.1%로 가장 높았고 SD는 37.2%, OFF-JT는 21.7%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현재 각 기업에서 실시중인 인재육성수단으로는 OFF-JT가 38.3%로 가장 높았고 OJT는 37.8%, SD는 23.9%로 나타나 앞으로 기업교육은 OJT와 SD에 중점을 뒀다 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내에서 OJT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직장에서 부하에게 최대의 영향을 주는 관리 감독자가 부하를 지도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부하의 업무지식과 능력 향상은 곧 조직의 업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 60개 업체중 현재 OJT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는 86.7%인 52개 업체이고 미실시업체는 13.3%인 8개사에 불과했다.

OJT의 시행성과에 대해서는 매우 잘 되거나 잘 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절반인 50.0%였으며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업체는 33.3%, 잘 안되고 있는 업체는 16.7%로 조사됐다.

잘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자의 무지 및 관리소홀이 43.1%로 나타났고 교육체계 미정비가 19.4%, 제도적 지지부족이 1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OJT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도사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관리감독자의 자발적 관리가 각각 30.8%로 가장 많이 지적됐으며 관리감독자의 교육 필요성과 교육 부문의 적극관리가 각각 15.4%, 인사와 연계한 평가의 필요성이 5.0%로 나타났다.

OJT는 교육당사자가 부하육성의 최적임자인 상사와 상하간의 신뢰관계를 넓히면서 개인의 필요에 따라 실무에 밀착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업무의 노하우 숙지와 기업문화의 중요한 전승수단이 된다. 뿐만 아니라 상사의 능력개발에도 도움이 된다.